## 에테르 워치: 영원한 전쟁 세계관

파트	창세기
	태초의 시대에서 에테르 세계는 아멘이라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어둠의 에테르는 더욱 어둡게 물들어가고, 달의 에테르는 더욱 빛나게 물들어간다. 모든 창조의 시초는 어둠과 달빛이 함께였고, 그로 인해 에테르가 탄생하게 된다.
	아멘은 어둠의 여신 칼리와 달의 여신 루나를 창조하여 세계를 지배하도록 시키는데 칼리와 루나 사이의 갈등은 세계에 어둠과 빛의 싸움을 불러왔다.
본문	갈등 속 또 다른 혼돈의 세계에서 용종족이 탄생하게 된다. 이 두 여신의 갈등은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영향은 고대 이전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에테르 대륙은 아발론, 네뷸로사, 루마나리아, 크로노스, 디멘셔니스, 아테리아, 세라핀 등 7 개의 대륙으로 이루어져 존재하고, 이 대륙들은 고대 이전의 세계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세계의 기원과 전설이 담겨있다. 고대에는 고대 신화와 유적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대에는 발전된 기술과 도시가 펼쳐져 있다. 에테르는 세계의 생명력과 에너지의 근원이며,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몇 세기 전, 에테르는 실종되어 세계는 침묵에 물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를 혼돈과 위기에 빠뜨렸고, 현대 시대의 플레이어들은 에테르의 실종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며 세계를 구하는 여정에 나서게 된다.

추가 설명	각각의 네이밍은 고대 판타지 신화에서 영감을 얻음 에테르가 어떤 물질인지를 보여 주는것
의도	태초의 신 "아멘이" 어둠의 여신"칼리"와 달의 여신"루나"를 창조하는 것과 혼돈 속에서 용 족이 탄생하는 계기 설명
추가 예정	

파트	에테르 워치: 영원한 전쟁
	고대 시대는 전설과 신화가 무한히 펼쳐진 곳으로, 고대의 지식과 비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마법과 이야기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세계로, 고대 신들과 영웅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본문	유적지는 고대 문명의 유물과 예언자들의 고서로 가득 차 있고,

'드래곤의 둥지'와 같은 고대 신화 유적은 전설적인 생물과 마법의 기원을 담고 있으며 '빛의 탑'과 같은 건축물은 고대 마법의 힘을 담고 있고 탐험가들이 이곳에서 고대 마법의 비밀을 탐구한다.

에테르의 힘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주로 플레이어는 이곳에서 고대의 전설과 신화를 시네마틱으로 감상하며, 세계의 기원과 전설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경험한다.

또한 혼돈속에서 태어난 용 족도 시네마틱으로 감상할 수 있다.

현대 시대는 발전된 기술과 도시가 번창하는 곳으로, 에테르 대륙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는 현대 기술과 현대적인 생활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에테르의 흐름은 여전히 세계를 빛내고 있다.

플레이어는 이곳에서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며, 전투와 모험에 참여하게 된다.

추가 설명	고대 신화의 모습과 에테르 대륙을 보여주는 것!
의도	<ul> <li>플레이어에게 고대 판타지 신화를 시네마틱으로 감상하게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험</li> <li>이후 현대시대의 발전된 모습을 바탕으로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플레이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세계관 스토리</li> <li>에테르의 중요성과 주인공이 두 진영중 한 진영을 선택하는 것.</li> </ul>
추가 예정	